

대법,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과세 관청의 처분 취소로 납세의무 없어져”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사진)이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홍콩 페이퍼 컴

퍼니를 통해 조성된 회산된 6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2007~2008년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회계처리를 조작해 위법하게 배당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자산을 차명 주식으로 보기 어렵다

고 봤다. 1심이 일부 위법배당으로 인정한 부분에 무죄로 뒤집어 벌금이 약 13억원 줄어 들었다.

대법원은 “과세 관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게 돼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며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장남인 조 회장은 회사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16억원을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

퍼니 명의로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다행스럽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 동호회 활동 의사가 잇따라 확진

전국 이틀째 1000명 넘어...3일 거리두기 재조정

광주에서 의사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인들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틀째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연일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중환자와 사망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최근 들어서는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의

집단발병도 확산하는 추세여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끝나는 오는 3일 전에 거리두기를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27일 광주 1049명 확진자를 시작으로 28

일 3명, 29일 2명의 의사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남대병원 3명, 종합병원급 광산구 모 병원 2명, 전남 나주 모 병원 1명 등 1~3차 의료기관에서 확진자들이 나왔다.

이들 일부는 체육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호회 활동을 하며 몇 차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것으로 확인돼 이 과정에서 연쇄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가족까지 연쇄 감염돼 이들과 관련된 확진자는 현재

까지 8명으로 늘었다. 일부는 지난 22일 증상 발현 후에도 며칠간 일상적으로 진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료진이 어려운 여건에서 수고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방역 수칙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확진됐을 때 생길 여파를 고려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는 기본으로 외부 활동 자제 등에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확산세는 여전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50명 늘어 누적 5만 9773명이라고 밝혔다. 전남(1045명)보다 5명 많다. /박진표 기자 lucky@



30일 오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2021년 광주시장·전남지사 신년사

“비대면 디지털 사회 ‘인공지능 광주시대’ 열겠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



2021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험악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광주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똘똘 뭉쳐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기회는 위기의 옷을 입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를 가속화시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광주시대’를 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그동안 정성들여 뿌렸던 혁신의 씨앗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응변창신(應變創新), 변화에 한발 앞서 선도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2021년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저지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결실을 맺어 오는 9월부터 ‘광주형 자동차’가 생산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

율’을 해결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 국내 유일의 ‘국가AI융합단지’와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갖춘 GPU 기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착공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능이 가장 좋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누리은 5호기(세계 17위)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국내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형 AI-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1년을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참여의 광주에너지전환 거버넌스와 시민 햇빛발전소를 통해 시민 중심의 탄소중립 녹색산업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남형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하겠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힘과 근면, 평화를 상징하는 소의 해, 신축년이 밝았습니다.희망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와 재재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 덕분에 전남 행복시대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도민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활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쏟겠습니다. 도민들께 행복을 전해 드리는 희망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새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 가치의 존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전남의 풍부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 ‘전남형 그린뉴딜’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를 ‘2050 전라남도 탄소 중립 원년’으로 선포하고, 도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형 재생에너지사업’

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초대형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함께 새롭게 ‘초강력 레이저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전남·광주·전북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휴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 면역치료 혁신플랫폼 등을 연계해 ‘K-면역 바이오 혁신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생명산업과 식량주권을 위한 농어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농어업을 융복합산업화하고,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변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작하고, 미래의 주역인 ‘새천년 으뜸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면 뜻은 이룬다”는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전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지·다가구·주택용지, 임야 매매

1. 다가구 및 주택용지 ※주거2종

담양읍 양각리 강변 관광제림, 독립 관광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 15분 공공주차장 도로 3면 포장 배수로 기반시설됨
경관수려, 정남향, 교통요지 담 4220㎡(1,276평)
매 ㎡ 65만5천원

2. 임야 (전원주택 펜션 농가주택, 휴양소 약초재배 적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포함 7만6천㎡ 광주 35분 4차 국도 근접, 마을 변방 편백휴양림 30년생 1만주 식재 농지가용면적 5천㎡ 월출산 바라본 쾌적한 자연경관 전원주택, 펜션, 귀촌자 최상 ㎡ 5천원 급매

(2) 화순 도곡 산성리 광주 20분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5810㎡(전 포함) 지식강 바라본 마을변방 정남향 관광제림 경관수려 전원주택, 펜션, 휴양소, 최상 ㎡ 4만원 급매

(3)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 25분,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종전 밭으로 경작 평지 토질 마사토 22,140㎡ 각종 약초 재배 최상 현 지적상 맹지 자연림 소나무 자생 매 ㎡ 2만원

(4)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 25분 농림지역 도로접 62,740㎡ 휴양림 적용 다수 자생, 생약재배 적합 농가주택 ㎡ 5천원 급매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종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유폴러스 길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광양 도시관리계획 (마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광양시 마동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마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변경)

구 분	기정	면적(㎡)	변경	변경률 (%)	비고
계	212,630	중) 9,276	221,906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206,724		206,724	93.2	
제2종일반주거지역	5,906	중) 9,276	15,182	6.8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기정	면적(㎡)	변경	변경률 (%)	비고
17	마을지구	광양시 마동 313번지 일원	212,630	중) 9,276	221,906		

다.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면적(㎡)	변경	변경률 (%)	비고
총 계	212,630	중) 9,276	221,906	100.0	100.0
소 계	164,844	중) 9,493	174,337	77.5	78.6
주거용지	70,627	중) 45,170	115,797	33.2	52.2
공공용지	64,346	중) 35,677	28,669	30.2	12.9
녹지용지	2,960	중) 2,960	1,4	1.4	1.3
특별계획구역	26,911	중) 26,911	12.7	12.7	
소 계	31,615	중) 4,780	26,835	14.9	12.1
공원	1,191	중) 1,191	1.1	0.6	
도로용지	27,841	중) 6,004	21,837	13.1	9.8
주거진흥용지	2,558	중) 137	2,695	1.2	1.2
보행자도로	1,216	중) 104	1,112	0.6	0.5
소 계	16,171	중) 4,563	20,734	7.6	9.3
공원	16,171	중) 4,077	20,248	7.6	9.1
경관녹지	-	중) 486	486	-	0.2

※ ()는 보행자도로 소로 3-572호선이 일부 포함(560㎡) 면적임
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세부조서 및 관계도면(변경) : 관계도시 참조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0. 12. 31. ~ 2021. 1. 14.(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광양시청 도시계획과
다. 관계도시 : 계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계획과 비치)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팀(☎ 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영백영전과 영백 주식회사(2020년 12월 30일 각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영백영전이 영백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주식회사 영백영전은 소멸하기로 결의한 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본 합병 결의에 이의가 있는 양사의 채권자께서는 다음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 영백영전의 주권은 소멸하고 영백 주식회사는 아래의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비용 : 주식회사 영백영전 : 영백 주식회사 = 1:0(무종자 합병)
(2) 합병기간 : 2021년 02월 03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인된 한계 양사에 대한 채권 보유자만
(2)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02월 02일
(3) 이의제출 장소 :
- 주식회사 영백영전 : 전라남도 영광군 영산면 청산로9길 185-86
- 영백 주식회사 : 광주광역시 서구 문봉2로 16, 203호(화정동)
(4) 상기 이의제출기간 종료 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양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에 대한 이의신청권 또한 소멸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

(1) 구주권 제출기간 및 장소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및 장소와 같음
2021년 1월 1일
전라남도 영광군 영산면 청산로9길 185-86
주식회사 영백영전 대표이사 민동성
광주광역시 서구 문봉2로 16, 203호(화정동)
영백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관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0. 12. 29.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 3. 5.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1. 1. 1.
씨에스엠주식회사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5로 46
청산인 노 윤 호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12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나, 본 회사해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1. 1. 1.
주식회사 메타가족관광호텔
광주광역시 서구 지평로 116, 512호(지평동, 월계수타운)
청산인 허정록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여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69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 지역안내 •

북 구 • 동 광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백 운 651-1833
• 북 성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